



all ways INCHEON

다양한 문화가 살아있는 길  
조화와 균형으로 성장하는 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합니다

02 2018 FEBRUARY

# 굿모니 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COVER STORY  
Retro? Newtro!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의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을 찾아간다. 사진은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인 임순례 감독.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된다

햇살 스며든 저 아름다운 갯벌은, 섬사람들에겐 눈물겨운 생존의 터전이다. 그들은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게 패도록, 거친 바닷속에서 평생 삶을 일구었다. 망태기 그득 조개를 캐던 기억, 펄 구멍을 헤집어 커다란 낙지를 끌어올릴 때의 희열, 때론 빈 바다를 지켜보아야만 했던 애타는 심정이, 너른 바다 곳곳에 새겨져 있다.

“저 섬이 예쁘기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데. 우리야 매일 봐서 잘 모르겠어.”  
오늘도 밥벌이를 위해 허리 한 번 펴지 않고 쉽 없이 호미질을 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가는 길. 누군가에겐 한두 번 스쳐가는 여행길이, 다른 누군가에겐 고단해도 걸어야만 하는 삶의 일부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굿모닝 인천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2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 — 기획·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CONTENTS

- 04 인천미소 굿모닝 마니아 外
- 06 트렌디한 공간 부평 거리
- 12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KTX로 인천에서 평창까지
- 18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② 인천영상위원회
- 22 인천 VS 세계 도시 ②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VS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 26 알아두면 편리해요 도서관 별별 서비스
- 30 설 특집 전통 있는 가문
- 36 얼굴 좀, 봅시다 문화 기획자 장한섬
- 38 문화 캘린더 어린이 체험전 ‘헬로 브릭’ 外
- 42 시정뉴스 인천시홍보자문단, ‘서인부대’ 알린다 外
- 48 의회뉴스 소외이웃 보듬는 ‘사랑나눔’ 실천 外
- 50 컬러링. 인천 월미공원
- 52 Info Box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 안내 外
- 57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문화가 되다 ② 스타벅스
- 58 모닝 커피 한잔 ‘인천우유’를 아시나요
- 59 인천 사는 나무 석모도 보문사 향나무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 인천미소

‘미’디어 ‘소’식통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 가끔씩 만나도 늘 반가운 ‘굿모닝인천’

독자 백선영(서초구 반포4동)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시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 사는 시댁 아가씨 덕  
분에 ‘굿모닝인천’을 ‘애정’하게 된 서울 시민입니다. 쑥스러워하는 저를 위  
해 함께 사진을 찍어준 제 친구는 저의 인도로 ‘굿모닝인천’을 즐겨 보고요.  
제가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추석 때입니다. 결혼과 함께 며  
날아가가 된 저는 오는 설에도 인천에 갈 예정입니다. 집안의 첫째인 시아  
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까닭에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시댁  
작은집에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이죠.

남편과 손잡고 처음으로 작은집에 가던 그날은 무척 떨렸습니다. 남편은  
초보 며느리로 수고한 저를 위해 인천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때 그 유명  
한 차이나타운에 가 짜장면을 먹었지요. 남편이 10년째 다닌 단골집이었  
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대만 간식 평리수는 깜짝 놀랄 만큼 달콤했습니다.  
공갈빵은 배가 부르는데도 자꾸자꾸 손이 가더군요. 포천 쿠키를 뜯는 재미  
도 남달랐습니다. 그때 ‘당신을 기쁘게 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거예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함께 웃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 홍보지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너  
무 정색하고 무엇을 홍보하면 왠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  
게 인천 사는 사람과 그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마음이 갑니다.

1월호에서는 ‘섬이야기 문갑도’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김 틀이나 굴 바  
구니 등이 정감이 가 집 안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고 싶더군요. 김명중  
작가가 찍은 트라이보울 사진도 인상적이었고요. 어느 TV 광고에서 보  
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올 설에는 송도국제도시로 나들이를  
가야겠습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 옛것을 지켜야 진정한 발전

인천시는 유구한 역사가 흐르는 도시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도시를 개발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시  
차원에서 재개발 지역을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로 변모시키는 것보다,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꾸는 방안을 강구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천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혜 부평구 경인로

### 시민에게 귀 기울이는 인천

‘굿모닝인천’에 국민신문고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난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학교 앞에 신호  
등을 만들어 주세요” “동네 사거리 보행신호를 동시신호로 변경해주세요” “주민센터 어느 직원을 칭찬합니다”  
등등 그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인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 김서령 남동구 인주대로

### 세계가 찾고 머물고 싶은 인천이 되길

올해 우리 인천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모두 찾고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  
니다. 또 이달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해외 관광객이 넘치고 인  
천도 호황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남북관계도 화해의 무드를 타기 바랍니다.

- 박정현 구월동 선수촌로

### 외국어 배울 기회가 늘어나길

저는 신흥여중생입니다. 도서관 등지에서 ‘굿모닝인천’을 즐겨 읽고 있으며, 어떤 날은 온라인에서 전자책 형태로 읽  
곤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 영어나 중국어 등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1월호를 읽다가 중국어 잡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실어주세요.

- 서지현 중구 인항로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 ‘굿모닝인천’ 1년 모으면 ‘올웨이즈 인천!’

‘굿모닝인천’을 올 한 해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인천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이 완성됩니다.  
‘굿모닝인천’ 2018년 컬렉터에 도전해보세요!



#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상가

## ‘청년 장사꾼’이 되살린 골목상권이 뜬다!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디한 공간으로 유명해진 곳, 바로 부평의 ‘평리단길’이다. ‘커튼 골목’이라고 하던 부평시장 뒷길, 젊은 청년들이 모여 문을 연 카페와 음식점, 펍이 자리 잡으면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서울 ‘경리단길’에서 착안한 ‘평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면서 썰렁했던 골목이 활기를 띠고 있다.

글 김윤경 본지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 청년 상인들이 만들어낸 ‘평리단길’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부평시장 방향으로 가는, 차 한대가 지나갈 정도의 작은 골목길. 상인들과 장을 보러나온 사람들 외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했던 이곳에 2년 전부터 청년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골목 안에 카페와 음식점, 옷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젊은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를 SNS를 통해 알렸고, ‘평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가게들이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권이 활성화되자 기존 상인과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 오석준 회장은 “지금 평리단길이라고 하는 지역은 미군부대가 있었던 1955년부터 상권이 형성된 곳이었다”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번영과 쇠퇴의 쌍곡선을 그려왔지만, 최근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부평상권

부평 상권 활성화의 일등공신은 미군부대와 수출공단이었다. 부평수출공단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부평시장은 1970년대 전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1960·70년대는 부평시장이 상권의 중심이었다. 1980년대는 부평 지역 곳곳에 시장이 새로 생기면서 부평시장에 집중되었던 상권이 조금씩 분산됐다. 덕분에 주변에는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뜨개질 골목, 커튼 도매 골목, 의류 골목 등이 터를 잡고 있다. 특히, 1979년에 개설된 부평로지하도상가에 이어 시장로터리지하도상가와 성일로지하도상가가 들어서면서 부평 지역에 지하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 지하도상가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당수의 소비자가 지하상권으로 흡수됐다. 이후 대형 슈퍼마켓과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부평 지역의 상권은 춘추전국 시대를 맞게 됐다.



### 젊은 청년들이 다시 바꿔놓은 상권

부평 지역의 볼거리로는 1997년 부평역 주변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주말이 되면 길거리 공연장엔 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연 문화를 즐기는 곳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상권도 예전 같지 않았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이곳을 살려놓은 것은 청년 상인들이었다. 지난해 초부터 청년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썰렁하던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골목 안에 작은 카페와 음식점, 옷가게를 차리고 SNS를 통해 홍보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발길이 급격히 늘어났다. 젊은 사장 대부분은 부평 출신. ‘평리단길’은 기존의 부평시장에서 품질 좋은 식재료를 마음껏 구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평리단길의 굽이굽이 좁은 골목길에는 일본 가정식 전문점, 달콤한 컵케이크 카페, 재즈 펍, 그윽한 커피 향 가득한 카페 등 인스타그램에서 이름을 날리는 스타 가게들이 숨어 있다.



## #BUPYEONG

### 1일 1메뉴 원칙의 일본 가정식 비스트로 땅콩

매일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는 일본 가정식 전문점 ‘비스트로 땅콩’은 평리단길의 대표 가게 중 하나. 일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10명이 앉을 수 있는 기다란 테이블이 먼저 눈에 띈다. 낯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어색할 법도 한데, 모두 익숙한 듯 테이블에 웅기종이 모여앉아 그날의 메뉴를 즐긴다. ‘원 메뉴’ 원테이블이 비스트로 땅콩의 특징이다. 불편할 듯도 한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정갈한 음식’과 ‘정성’이다. 깔끔한 테이블 매트 위에 차려지는 정성스러운 한 끼는 근사한 대접을 받은 기분이 들게 한다.

일본 음식 마니아라는 이유경(28) 씨와 김성훈(27) 씨는 연인이자 비스트로 땅콩의 젊은 사장이다. 음식 만들어 먹고 대접하는 걸 즐기다 보니 밥집을 차리게 됐다는 이들은 비스트로 땅콩이 편안하게 밥 한끼 먹을 수 있는 친구 집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 “저희는 오픈 주방이에요. 친구네 집에서 친구가 밥하는 거 보면서 얘기하고 같이 만들어 먹는 느낌이었으면 하거든요.” 큰돈을 벌기보다는 감당할 만큼의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생각으로 단출한 메뉴로 짧은 시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만, 자주 찾아주는 손님들이 제법 늘었다고. “우리 가게엔 전화가 없어요. 단골들이 메뉴를 미리 알고 싶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주시니 늘 감사하죠.”

부평구 부평대로 38번길 22  
[www.instagram.com/ddang\\_kkong](http://www.instagram.com/ddang_kkong)



따뜻한 파스타면에 짭조름한 명란과 버터를 넣은  
‘명란 버터 파스타’, 신선한 야채와 올리브유를 넣은  
브루스게타와 렌틸콩 스프



생일이나 파티를 위해 특별한  
컵케이크가 필요하다면 미리 주문할 것,  
상담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과 맛을  
고를 수 있다.



부평구 부평문화로 80번길 4  
[www.instagram.com/verandacupcake](http://www.instagram.com/verandacupcake)



### 모양만큼 사랑스러운 달콤함 베란다 컵케이크

골목 안 낡은 느낌의 민트색 출입문이 시선을 먼저 잡아챈다. 건물 2층에 자리해 지나치기 십상이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들르게 되는 곳, 디저트 카페 ‘베란다 컵케이크’다. 매장에 들어서면 거리를 향해 난 시원하고 널찍한 베란다 창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액자 프레임인 듯 골목길의 풍경이 창 안에 오롯이 담긴다.

친정엄마의 어깨너머로 배운 컵케이크 솜씨가 지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가게를 차리게 됐다는 최민화(35) 씨. 자신의 아이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컵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100% 우유 버터와 직접 만든 과일 퓨레 등 최상급 재료만 사용하고 있단다.

“외국 컵케이크는 엄청 달지만, 저희 것은 많이 달지 않으면서 촉촉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베란다 컵케이크’는 빵의 품질 유지를 위해 매일 정해진 수량의 빵을 만들어 내는 홈 메이드 방식의 컵케이크 전문점이다. 이 때문에 매장은 다양한 컵케이크를 만드는 작업실이자 카페인 셈. 분위기가 밝고 아늑하다. 최 씨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낡은 LP판과 독특한 전구,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한 소품 등을 이용해 매장을 직접 꾸몄다. 가정집을 개조한 카페는 방의 벽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일부분 남겨두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덕분에 달콤한 냄새로 가득한 편안한 공간이 생겼다.





## 재즈 선율과 맥주가 어우러진 밤 창고 재즈팝

푸른빛 간판이 돋보이는 재즈팝 ‘창고’. 세련된 음식에 가벼운 맥주, 칵테일 한두 잔을 더하며 분위기 있는 밤을 꾸미기 좋은 곳이다.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창고의 대표 메뉴인 감바스와 창고파스타는 술에 곁들이는 음식이 아닌 ‘요리’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창고’를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재즈 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창고’에서는 주말마다 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베이스기타를 연주하는 김현석(26) 씨와 작곡을 하는 정병민(28) 씨는 아티스트들과 대중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창고’는 실험적인 공간이에요. 대형 기획사를 낀 아티스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교감할 통로가 많지만,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없어요. 창고 재즈팝은 대중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아티스트들에게 쓰임새가 있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아티스트와 대중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매개체로 음악과 문화를 전파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가게를 열었다. 물론 지금은 음식 맛이 너무 좋아 ‘맛’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음악’이 좋아서 찾았는데 음식도 맛있네, 라는 평가를 받고 싶단다. ‘창고’를 단순히 ‘팝’으로만 부르기엔 아쉬운 이유다.

부평구 부평문화로 40번길 15-1  
www.instagram.com/changgo\_jazzpub

## #평리단길

한입 크기의 새우와 고추, 마늘이 오일과 잘 어우러져 매콤하면서 고소하고 달달한 감바스는 단연 창고 재즈팝의 일등 메뉴



## #BUPYEONG

## 나만 알고 싶은 곳 오늘여기우리

커피를 마시다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는 곳. 비오는 날은 비오는 대로, 맑은 날은 맑은 대로 기분 좋은 3층. 창 안으로 가득 들어오는 햇살에 반해, 사람들이 드나들기 좋은 1층이 아닌 3층에 덜컥 자리 잡게 됐다는 카페, ‘여기오늘우리’. 층계 입구에 수줍게 걸려있는 조그만 간판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법한데, 사람들은 소문만으로 잘도 찾아온다. 찾아오기 힘들었다는 말에 주인장은 “주변 간판은 모두 크고 화려하잖아요. 저희까지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라고 답한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의 주인장 김태영(29) 씨처럼 카페 안은 함께 온 사람과의 이야기도, 혼자만의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는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다. 카페 이름이 독특하다고 하자, 예쁜 카드 한 장을 내민다. ‘내일을 위해 사느라 잊었던 오늘, 언젠가의 꿈을 꾸느라 잊었던 여기, 땅만 보며 걷느라 잊었던 우리’. 태영 씨의 여자 친구 김단비(29) 씨가 만들었다는 카드에서는 촉촉한 감성이 물씬 묻어난다. 오랫동안 커피 관련 공부를 해왔던 태영 씨는 그윽한 향의 커피를 만들고, 단비 씨는 플로리스트 솜씨를 발휘해 카페를 편안한 공간으로 바꿔 냈다. “저희는 공간도 작고 메뉴도 간단해요. 그냥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책도 읽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태영 씨와 단비 씨가 직접 꾸민, 작지만 소박하고 편안한 공간



부평구 부평대로 36번길 12 3층  
www.instagram.com/ooo\_coffee



## 좋은 것으로만 가득 채우고픈 Boful(보풀) Cafe

구수한 빵잎과 씹살한 맛의 녹차가 근사하게 어울리는 녹차빵 셰이크



건물 앞에 잔잔하게 깔려있는 초록색 인공잔디가 성급한 봄소식을 기대하게 만든다. 초록색에 이끌려 종종히 계단을 올라가면 잔잔하게 퍼지는 커피향과 함께 널찍한 카페가 한눈에 들어온다. 편안함과 따스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카페. 곳곳에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는 옷과 소품들이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커피 관련 일을 해온 이서인(33) 씨와 회사에서 패턴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희(33) 씨가 함께 만든 공간이라, 카페와 옷 매장이 공존하는 솜인솜 형태를 갖추게 됐다. 디자인을 전공한 이 씨는 커피의 매력에 빠져 커피 관련 일을 오랫동안 했다. 2012년부터 작전동에서 Boful 카페를 운영하다 지난해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매장 안에 직접 로스팅하는 공간과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이 씨의 커피에 대한 사랑은 뜨겁다. “유행을 좇는 메뉴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메뉴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씨는 좋은 재료는 물론이고 커피를 만들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신념이 옛날 작전동 카페 시절의 단골들이 이곳을 찾게 만드는 이유다. 두 명 이상 모이면 개별 스케줄에 맞춰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진행하고, 매달 원데이 클래스(무료 교육)도 실시한다는 그녀의 얼굴엔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다.

부평구 부평문화로 65번길 17 2층  
blog.naver.com/cafeboful





# PYEONGCHANG

## 인천에서 평창까지,\* 2시간 40분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KTX 타는 곳’을 알리는 표지판을 따라 걷는다. 목적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릉역. 열차에 새겨진 대회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여행객들을 반긴다. 기다리던 겨울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공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내쳐 달음박질친다. 일상을 넘어 하얀 겨울 속으로 여행이 시작된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차창 밖 세상과 인사를 나눈다. 차가 막히지 않을 때도 인천에서 강릉까지는 시외버스로 4시간 30분, 자동차로 3시간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이제는 기차로 2시간 40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다.

설원의 풍경을 그리며 즐거운 상상에 빠져있는 사이, 기차가 서울역을 지난다. 열차의 안락한 의자에 몸을 묻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본다. 점점 속도가 붙어가는 도시의 일상. 용산역을 지나 옥수를 건너 한강과 강변북로를 끼고 달리면서 열차는 도시의 분주함을 하나둘씩 밀어낸다.

## 알펜시아 설경을 찾아, KTX로 인천에서 평창까지

바람이 불어도 좋고, 눈이 내리면 더없이 좋다. 단 2시간 40분,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내쳐 달린다. KTX가 1월 26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 동계올림픽)’가 열리는 평창과 강릉을 잇는다. 이 기간에는 서울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인천에서 평창까지 곧장 KTX로 갈 수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코레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INCHEON



KTX가 달리는 강릉역

### 빠르고 편한 KTX 여행 \*

청량리역에 도착하자 삼삼오오 짝지은 사람들이 차에 오른다. 청량리역은 서울역과 함께 강릉까지 가는 KTX의 기본 출발역이다. 온기 가득한 실내에 승객들의 소곤거림과 웃음소리가 흐른다. 2시간 남짓이면 서쪽 바닷가에서 동쪽 바닷가까지 다다를 수 있다. 도로가 발달하고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여행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일상을 벗어난 사람들의 표정에 여유가 흐른다.

이 구간의 KTX가 개통된 지난 12월,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만 8,000여 명이나 증가했다고 강릉시는 전했다. 기차에 탑승한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KTX 여행이 매우 매끄럽고 신속하고 편안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조롭다. 세계인이 기다려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감한다.



KTX에 탑승하는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

### 동쪽 끝, 새하얀 세상 \*

양평역을 지난 KTX가 어느새 둔내역으로 들어선다. 둔내역에서 10분 남짓이면 평창역이다. 아쉬운 생각이 들 만큼 짧은 시간에 강원도에 다다랐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낮선 세상. 산기슭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시속 220km로 스쳐 지나가는 새하얀 세상이 금방이라도 품으로 달려들 것만 같다. 뽀얗게 서리가 내린 차창에 손끝을 대어 본다. 맨살에 닿는 바깥공기의 차가움이 싫지 않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 길을 달린 끝에, 결전의 빙상에서 땀과 열정을 쏟을 것이다.



드디어 평창역이다. 해발 660m에 자리 잡은 평창역은 눈 쌓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평창역에서 가까운 올림픽 경기장은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가 열리는 ‘휘닉스 스노경기장’이다. 진부역 인근에는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과 ‘알펜시아 경기장’ ‘용평 알파인 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 등 주요 경기장이 있다. 열차에 따라 서지 않고 지나치는 역이 있으니, 정차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평창역을 지난 지 22분 만에 종착역인 강릉역에 다다른다. 약 2시간 40분의 여정, 그 사이 서쪽 끝에서 동쪽 세상 끝까지 달려왔다. 경기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경포해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동쪽 바닷가, 날선 겨울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몽패딩’과 ‘하트 장갑’이 그리워지는 순간이다.





# all\_ways\_인천, all\_ways\_평창 평창 동계올림픽 이모저모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이 열린 지 30년 만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참가국 수와 금메달 수 등에서 역대 최고 규모다.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코레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SOOHORANG



BANDABI



역대 최대 규모, 15개 종목에 금메달 102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15개 종목, 102개 세부 종목에서 승부가 펼쳐진다. 종목은 크게 설상, 빙상, 슬라이딩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은 백호를 모티브로 삼았다. ‘수호’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며 ‘랑’은 ‘호랑이’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선 아리랑’에서 따왔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는 반달가슴곰을 모티브로 삼았다. ‘반다’는 반달을 뜻하며 ‘비’는 대회를 의미한다.

## EMBLEM



한글을 형상화한 올림픽 엠블럼  
평창 동계올림픽의 엠블럼은 평창의 초성 ‘ㅍ’과 ‘ㅊ’을 형상화하여 하늘, 땅, 사람, 눈, 얼음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평창의 눈과 얼음은 선수들과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세상을 의미한다. 순조롭다. 세계인이 기다려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감한다.

## SLOGAN

하나된 열정  
Passion. Connected.

슬로건은 ‘하나된 열정’  
평창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은 ‘하나된 열정 Passion. Connected’이다.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서 성화 봉송 출발  
대회 개막 G-100일인 지난해 11월 1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봉송(인천한마음봉송)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슬로건 ‘모두들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을 앞세우고 인천대교를 횡단한 성화 봉송에는 피겨스케이팅 유망주인 유영, 개그맨 유재석, 가수 수지 등이 주자로 뛰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  
개회식은 2018년 2월 9일 저녁 8시,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개회식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성화점화, 불꽃놀이, 올림픽의 꽃인 비둘기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이를 통해 한국이 분단의 강을 넘어 전 세계인과 손을 잡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폐회식은 2월 25일 저녁 8시,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인천영상위원회 앞에서 인증샷 찍는 방문객

## 스크린이 된 옛 창고 —— 농익은 시간의 매력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을 찾아간다. 그 두 번째로, 120년 된 옛 창고 건물에서 스크린 속 환상과 현실을 열어가는 ‘인천영상위원회’를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도심에서 골목으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인천영상위원회가 주안 도심 한복판에서, 개항장에 있는 1900년대의 옛 건물에 새 동지를 틀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잘 어울린다. 인천영상위원회의 강석필 사무국장은 오래전부터 이 건물에 관심을 두었다. “10여 년 전, 처음 이 건물을 보고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를 하는 사람들에게겐 창의성과 사고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영상위원회가 터를 잡기에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 분 일 초 켜켜이 쌓여온 시간. 낮은 지붕에 떨어지는 햇살, 골목길에 나부끼는 바람조차 앵굴에 담기면 아름다운 영상으로 펼쳐진다. 인천영상위원회는 이러한 인천의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CF 등의 영상물을 유치하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인 임순례 감독은 고향 인천을, 시간의 깊이에서 비롯된 ‘아우라’가 있는 도시라고 말한다. “현대적인 도시 이면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 공간적 자산을 영상으로 끌어들여 인천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 일대에 안착하니,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인천영상위원회가 주안 도심 한복판에서, 개항장 옛 건물에 새 동지를 틀었다.







120여 년의 시간이 고인 옛 창고에는,  
오늘 새로운 영상문화가 움트기 시작했다.  
건물 안에 있는 ‘한류영상콘텐츠관(좌)’과  
인천영상위원회 사무실(우)

## 시대와 시대를 이어 붙인 건물



역사의 시간이 씨실과 날실로 엮인 세월이, 자그마치 120여 년이다. 그만큼 오래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00년대 초 일본인 가와바타가 소유했던 창고로 알려져 있다. 이 일대를 매립하기 전에 세운 것으로, 건물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었다. 개항 당시 일제는 바닷가에 창고를 만들어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미곡을 가득 쌓아놓고 탐욕을 채웠다. 아픈 역사가 깃든 창고 건물은 훗날 인천건축사협회에 오랜 기간 자리를 내주었다. 인천영상위원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년간 비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아침 바다’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세월이 내려앉은 낡은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이는 ‘건축재생공간’의 이의중(37) 작가다. 그는 3년 전, 개항장 뒷골목에 아카이브 카페 ‘빙고(氷庫)’를 열고 이 일대에 건축 재생의 새바람을 물고 온 인물이다. 그는 건물을 보는 순간 놀라움과 호기심이 일었다. “외관을 보면 출입구의 문틀은 돌을 깎아 만들었고, 창문은 마름모꼴로 멋을 부렸어요. 보통 미곡 창고는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만들지 않아요. 이 공간이 궁금해졌습니다.”

안으로 파고들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밖에서는 한 건물인데 들어서니 시대별로 지은 네 건물이 이어져 있었다. 붉은색 벽돌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두꺼운 나무로 뒤덮였다. 세월을 지탱하기 위해 덧대고 기워놓은 것들을 건어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그 안에 숨어 있던 시간의 흔적을 찾아내 세상 앞에 새로운 빛을 보게 했다.

인천영상위원회의 위원장인  
임순례 감독(우)과 강석필 사무국장(좌).  
인천은 시간의 깊이에서 비롯된  
‘아우라’가 있는 도시다.  
그 공간적 자산을 영상으로 끌어들이  
인천을 널리 알리고 싶다.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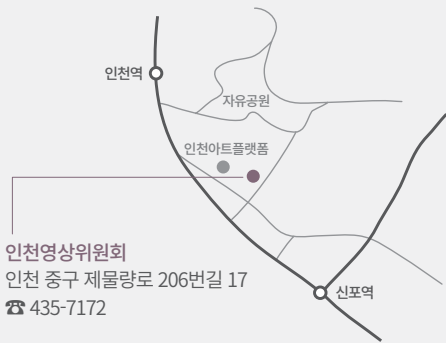
120여 년의 시간이 고인 옛 창고에는, 오늘 새로운 영상문화가 움트기 시작했다. 인천영상위원회 건물 1층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한류영상콘텐츠관’이 있다. 그 안에는 인천에서 촬영된 영상물 DVD를 비롯해 관련 서적과 대본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특별한 시선의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선보이는 ‘별별 시네마’ 코너도 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 인천. 우리나라 역사 한가운데 있던 인천에는 깊은 시간의 흔적이 스며있다. 임순례 감독은 인천 사람으로서, 또 영화인으로서 인천의 원도심이 낡고 허물어진 그대로,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길 바란다. “시간의 깊이가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란 쉽지 않아요. 그 어떤 미술과 특수 효과로도 표현할 수 없지요. 역사란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달 그의 새 영화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est)’가 개봉한다. 일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배우 김태리를 주연으로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촬영했다. 임 감독은, 전에는 몰랐던 고향 인천에 대한 매력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언젠가 그의 작품 속에 우리네 삶이 굽이굽이 살아 숨 쉬는 동네와 골목의 풍경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 information



인천영상위원회  
인천 중구 제물량로 206번길 17  
☎ 435-7172





# VOLKSWAGEN AUTOSTADT



## 드라이빙 체험에서 주니어 캠퍼스까지 세계적인 자동차 복합 문화 체험 공간

BMW그룹이 독일·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인천 영종도에 설립한 BMW 드라이빙센터가 지난 2014년 8월 개장 후 올해로 4주년을 맞는다. 자동차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인 BMW 드라이빙센터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국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올해까지 누적 방문객이 50만 명을 돌파하며, 인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테마 파크인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와 비견될 만하다.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볼프스부르크에 자리 잡은 아우토슈타트는 2000년 6월에 개장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테마파크다. 두 곳 모두 자동차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글 원성열 스포츠동아 자동차 전문 기자 | 사진 BMW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 국가를 대표하는 자동차 문화 체험 명소

BMW 드라이빙 센터는 한국의 자동차 문화의 성장 촉진을 위해 건립됐다. BMW 그룹은 한국과 더불어 독일 마이자크(Maisach),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스파르탄버그(Spartanburg) 등 총 세 곳에 드라이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는 세계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주행 트랙과 브랜드 체험을 위한 전시장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는 폭스바겐 브랜드의 자동차 출고장과 테마파크를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자동차 문화공간이다. 지난해에만 약 220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약 15만 명의 고객이 아우토슈타트에서 자신이 구입한 차량을 직접 인도받았다. 이들이 아우토슈타트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차량을 직접 인수하면서 박물관, 체험센터, 호텔, 쇼핑센터 공원 등이 망라되어 있는 아우토슈타트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BMW 드라이빙센터 트랙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15주년 기념행사



## 인천 VS 세계 도시

②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VS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BMW 드라이빙센터 전경



BMW 드라이빙센터 트랙 전경

# BMW DRIVING CENTER

## BMW 드라이빙센터

개장 2014년 8월

투자 비용 770억원

부지 24만m<sup>2</sup>

주요 시설

브랜드 체험 센터, 드라이빙 트랙, 레스토랑 & 바, 이벤트 홀,  
라이프스타일 숍, 서비스 센터, 그린 파크, 전시장, 주니어 캠퍼스

연간 이용객 20만 명



# VOLKSWAGEN AUTOSTADT

##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개장 2006년 6월

투자 비용 5,553억원

부지 25만m<sup>2</sup>

주요 시설

브랜드 체험 센터, 폭스바겐 카 타워, 자동차 박물관,  
쿤덴센터(자동차 인도장), 호텔, 공원, 레스토랑, 쇼핑센터

연간 이용객 220만 명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카타워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자이트하우스

## 브랜드 체험은 기본, 서킷에서 레이싱 교육까지 OK

BMW 드라이빙센터로 들어서면 복합 브랜드 전시 공간인 브랜드 체험 센터가 관람객을 맞는다. 평상시에는 보기 힘든 BMW의 고성능 차량들과 MINI, BMW 바이크를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다. BMW 드라이빙 센터가 아우토슈타트와 비교해 뛰어난 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레이싱 전용 트랙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6가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전문 드라이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문 라이더가 운전하는 BMW 모터라드 바이크에 탑승해 BMW 드라이빙 센터를 투어하는 ‘조이라이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향후 온로드 및 오프로드 트랙 확장을 통해 다양한 신규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전시공간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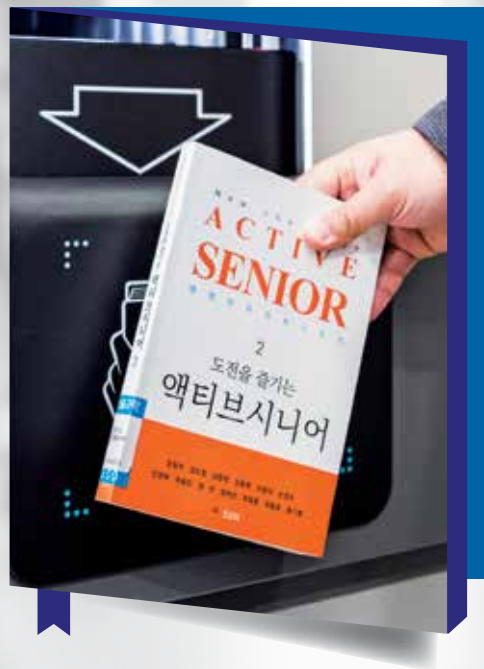
자신이 구입한 자동차를 출고장에서 직접 넘겨받는 경험은 짜릿한 즐거움 중 하나다. 아우토슈타트 폭스바겐 센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폭스바겐의 전시장이자 출고장 역할을 겸하는 쿤덴센터(Kunden Center)와 자동 컨베이어 터널을 통해 연결된 48m에 달하는 유리 자동차 타워다. 이곳에는 신차 약 400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차량을 인도받을 고객이 쿤덴센터에 도착하면 유리 자동차 타워 안에서 차량이 자동으로 인도 장소로 이동해 온다. 고객은 차량에 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고, 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기념사진도 촬영하는 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아이와 어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들을 위해 어린이 과학 창의 교육 프로그램인 주니어캠퍼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소외계층 어린이 3,663명을 포함해 총 2만9,820명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친환경 공원과 스포츠 시설로 이루어진 1만2,000m<sup>2</sup> 규모의 그린파크도 BMW 드라이빙 센터의 자랑이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으며 잔디 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키즈 드라이빙 스쿨도 운영한다. 브랜드 체험 센터 2층에서는 트랙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워커힐 호텔과 함께하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독일 감성의 유러피안 다이닝 코스를 만끽할 수 있다. 아우토슈타트 역시 모든 연령대의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준비해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가족들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고급 호텔인 리츠칼튼이 아우토슈타트 내에 자리 잡고 있고, 스위스의 유명 외식업체인 뢰벤팍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9개나 있어 ‘맛있는 휴식’이 가능하다. 자동차 박물관인 폭스바겐 자이트 하우스(ZeitHaus)도 특별한 볼거리다. 과거 폭스바겐 모델뿐 아니라,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벤츠, BMW, 롤스로이스 등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초기 모델들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시즌별로 유명 뮤지컬이나 댄스페스티벌도 열린다. BMW 드라이빙 센터와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자동차 문화 저변 확대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 책, 아침에 쓱- 빌려서 저녁에 쓱- 반납하자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나 퇴근이 늦은 직장인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땐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먼저 살펴보자. 출퇴근 시에 편리하게 책을 바로 빌려볼 수 있고, 전자책을 얼마든지 공짜로 읽어볼 수도 있다. 또 도서관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전국 어느 도서관이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하는 책을 집에서 택배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집 안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많은 겨울, 도서관의 스마트한 서비스를 맘껏 누려보자.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 ‘책 자판기’에서 바로 빌려 보세요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365일 24시간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면? 출퇴근 시간에 책을 손쉽게 빌릴 수 있다면?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손쉽게 책을 바로 빌릴 수 있는 편리한 ‘스마트 도서관’이 지난 1월 서구청역과 검단사거리역에 생겼다. 스마트 도서관은 자동 도서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는 365일 무인 자동화기이다. 대형 터치스크린에서 책을 골라 책 바구니에 담고 대출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원하는 책을 그 자리에서 바로 빌릴 수 있다. 물론 반납도 가능하다. 일종의 책 자판기다. 단,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 회원증이 있어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 도서관’과 비슷한 자동화기기는 주안역과 예술회관역에도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주안역의 ‘책나루 서비스’와 예술회관역의 ‘책마중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주안역은 대출신청 다음 날, 예술회관역은 신청 이틀 뒤에 관련 기기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반납은 1년 365일 언제나 가능.



대형스크린을 터치해 책바구니에 원하는 책을 담고  
‘도서회원증’을 인식시키면 바로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설치장소 서구청역, 검단사거리역  
이용방법 터치스크린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대출  
문의 검암도서관 ☎565-1610

**책나루 서비스**  
설치장소 주안역  
이용방법 홈페이지([www.imla.kr/sb](http://www.imla.kr/sb))에서  
사전신청  
문의 수봉도서관 ☎870-9100

**책마중 서비스**  
설치장소 예술회관역 지하 2층 대합실,  
미추홀도서관 1층  
이용방법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http://www.michuhollib.go.kr))  
에서 사전신청  
문의 미추홀도서관 ☎462-3900~1



##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책이음 서비스



도서관 어플 ‘리브로피아’를 이용하면  
모바일 회원증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갑 속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각종 회원증과 카드들...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 별로 카드를 서너 장쯤 소지하게 되는데, 여러 장의 카드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제 단 한 장의 카드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관회원증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해 보자. 도서관과 도서관을 잇고, 책과 책을 잇는 ‘책이음’ 회원으로 한 번만 등록하면 책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관련 사이트(book.nl.go.kr)에서 대출·반납 등의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 따라 한 도서관에서 5권, 참여도서관 포함 20권을 대출할 수 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모두가 전자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은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책이음 회원증을 발급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PC 및 태블릿PC를 비롯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 전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미추홀도서관 ☎462-3900~1



## 도서관 이용을 좀 더 스마트하게! ‘책 읽는 도시’ 앱



평소 전자책을 자주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책 읽는 도시’ 앱이 매우 유용하다. ‘책 읽는 도시’ 앱을 이용하면 전자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북, 영상강좌,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책소리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독서 권장을 위해 ‘책 읽는 도시’ 앱과 연동되는 터치스크린 ‘스마트라이브러리’를 관내 공공장소 21곳에 설치해 두고 있어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브러리’는 책 읽는 도시 앱의 접근성을 유도하기 위한 모듈이지만, 도서관 소식과 다양한 책 홍보, 시정소식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문의 도서관발전진흥원 ☎472-8182



## 원하는 책과 자료, 구매 드려요 상호 대차 서비스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우리 동네 도서관에는 없고 다른 지역 도서관에 있을 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호 대차 서비스 ‘책바다’를 이용해보자. ‘책바다’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이나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책바다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해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의 공공활용 서비스다.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이 가능하다. 책바다 서비스에는 국립중앙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전문도서관처럼 소장 도서가 많은 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작은도서관·학교도서관처럼 도서의 양이 적은 도서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상호 대차가 가능한 자료는 참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목 점자 혼용도서, 촉각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자막영상물 등)가 해당된다.

이용 방법 책바다 홈페이지 (www.nl.go.kr/nill) 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대출 권수 1인 3권 ※택배비 개인부담  
문의 미추홀도서관 ☎462-3900~1



일부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책소리 서비스’와 ‘더책’은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종이책에 목소리를 더한 책으로,  
책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비스다.  
아이들은 물론, 외국어를 공부하는 어른들이 활용해도 좋다.

## 책, 집으로 배달해 드려요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

날이 추워지면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무료한 시간을 책으로 달래보고 싶지만, 집에는 구미에 맞는 책이 없고 도서관까지 갈 형편은 되지 않는다. 이럴 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장애인, 6개월 이상의 임신부, 70세 이상 노인, 다문화가정,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 등 공공 도서관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이용자에 한해 도서 대출 무료 택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 서류를 직접 또는 대리인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접수하고, 택배 도서 대출 신청서 작성 후 전화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1인 5권 이내, 21일간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 인천시 거주 1~6급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산모수첩을 보유한 6개월 이상의 임신부,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만 6세 이하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70세 이상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작성 제출(직접 또는 대리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이용)  
대출 신청 택배 도서대출 신청서 작성 후 전화 및 이메일로 신청  
문의 미추홀도서관 ☎462-3900~1



오늘 꽃 피우고  
싹을 틔우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다.’ 인천에 굳게 뿌리내리고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우리 시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있는 가문을 찾아, 오늘 역사를 알리고 있다. 인천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와 300년 이상 인천에 뿌리내린 가문이 그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다.

인천에는 인천 이씨(仁川李氏)와 부평 이씨(富平李氏) 등이 인천을 본관으로 1,000여 년째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 이씨는 당나라 황제에게 성을 받은 신라 외교관의 후손들로 연수구 일대에 터를 잡았다. 부평 이씨는 조선시대 판서를 다수 배출하고 인천 연수구, 부평구, 남구 일원에 뿌리내렸다. 또 다른 인천 본관 성씨인 강화 노씨(江華魯氏)는 700여 년을, 강화 교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창원 황씨(昌原黃氏)는 600년 역사를 이어왔다. 전주 이씨(全州李氏) 완풍대군 안소공파는 1919년 계양구 황어장터 만세운동 때 일제에 맞선 기백이 넘치는 가문이다. 황어장터 만세운동은 인천 지역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조선 전기 문신인 허암 정회량 선생의 후손인 해주 정씨(海州鄭氏) 우후공파 가문은 450여 년을 검암동 일원에서 살고 있다. ‘허암 정회량 유허지’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도움말 최정학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

인천 이씨  
고려시대 ‘로열패밀리’

仁川李氏



인천 이씨 가문의 역사를 펼쳐 보이는  
이허겸의 33세손 이준상 아트신



도심 한가운데, 시대가 아아간 옛 풍광을  
고스란히 간직한, 원인재(源仁齋)

도심 한가운데, 시대가 아아간 옛 풍광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 원인재(源仁齋). 이 안에선 시간도 발길을 멈춘다. 원인재(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는 이허겸(李許謙)을 중시조로 하는 인천 이씨(인주 이씨, 경원 이씨)의 재실이다.

19세기 초에 지어진 원인재는 원래 지금의 인천여고 자리인 신지 마을에 있었다. 하지만 주변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인천 이씨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1994년 지금의 자리로 재실을 옮겼다. 이허겸의 33세손 이준상(82) 어르신 그 큰일을 맡았다. “대중회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덜 껴 먹이 났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문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한다는 게 뿌듯했지. 전국의 재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한옥을 짓는 목수들과 강원도 평창까지 가서 나무를 가져다 집을 지었어. 한 5년 걸렸지.”

원인재는 전통적인 양반 사대부 집 양식에 따라 지은 다섯 채의 가옥과 네 개의 문으로 이뤄져 있다. 원인재는 동재인 승휴당(承休堂) 앞에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그 앞마당 왼쪽으로는 관리사인 명인당(明仁堂)을 두었다. 돈인재(敦仁齋)가 마주 보이는 곳엔 정문인 경선문(景善門)이, 왼쪽으로는 후문인 첨소문(瞻掃門)이 나 있다. 가옥과 묘역까지 둘러져 있는 기와 담장이 운치를 더한다. 기품 있으면서도 소박한 모습에서 겸양의 미덕을 본다.



“  
이제 나도 떠나야지.  
이곳을 지키기엔 너무 늙었어.  
앞으로 우리 후손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한날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가문의 역사를 지키는 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누가 이 일을 계속 이어갈지 알 수 없다.

## 迎日鄭氏

영일 정씨  
조선시대 ‘가문의 영광’

선인들의 묘역에서  
영일 정씨 종친회의 정구익(78) 회장



“아, 훌륭하구려, 인천 이씨는 한국 역사의  
뿌리 깊은 씨족이라네.”  
시구를 쫓는 눈빛에 가문에 대한  
진한 자부심이 어려 있다.

인천 이씨는 당나라 황제에게 성을 받은 신라 외교관의 후손들이다. 이허겸의 조상인 허기(許奇)는 신라 경덕왕 15년인 755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 ‘안록산의 난’으로 피난길에 오른 현종(玄宗)을 호위하고 황제의 성인 이(李)씨 성을 하사받았다. 경덕왕은 그를 크게 칭찬하며 미추홀 땅을 주고 소성백으로 명했다.

지금은 바다가 매워졌지만, 이허겸의 묘역은 갯벌 한가운데 있었다. 간치도(看雉島, 우리말로 ‘까치 섬’이라고 불리던 언덕은 하루 두 번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됐다. 이곳은 연화부수지(蓮花淨水池, 즉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상’)으로 풍수지리 명당이다. 인천 이씨는 이곳에 조상의 뼈를 묻은 후로 고려시대 최고의 가문으로 번성했다. 손자 이자연은 재상이 되고, 고려 11대 문종(1046~1083)부터 17대 인종 4년(1126)까지 외척으로 큰 권력을 누렸다. “인천 이가 세상이었어. 인천 이씨의 몸에서 왕이 넷이나 나왔으니 참으로 대단한 거지. 이 일대가 다 우리 땅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땅 한 평 없이, 할아버지 모시는 무덤만 덩그러니 남았어.”

문학산 주변인 지금의 연수동, 선학동, 문학동 일대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인천 이씨는, 지금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후손도 10만 명이 채 안 된다. “이제 나도 떠나야지. 이곳을 지키기엔 너무 늙었어. 앞으로 우리 후손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한날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운명처럼 한자리를 지키며 가문의 역사를 지켜온 세월. 부침 많은 세상 속에서 고집스럽게 지켜온 전통이 먼 훗날에도 이어지길 바란다. ‘어혁인이삼한구족(於赫仁李三韓舊族)’. “아, 훌륭하구려, 인천 이씨는 한국 역사의 뿌리 깊은 씨족이라네.” 돈인재 기둥에 새겨진 시구를 좇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가문에 대한 진한 자부심을 본다.

청량산 남쪽 자락에 내려앉은 능어리(陵御里) 마을. 이곳에는 잘 가꾸어진 영일 정씨 묘역과 재실 동곡재(東谷齋)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인천에 있는 묘역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주변 솔숲의 경치가 매우 뛰어나다. 1995년 원인재 재실을 복원하는 것을 본 영일 정씨 후손들이 조상을 기리기 위해 재실을 만들고, 4년 뒤에 세천비(世阡碑)를 세웠다.

당시 건설업에 종사하던 종친회의 정구익(78) 회장이 가문의 일에 힘을 보탰다. 누구든 나서야 했다. 하지만 철근 구조물을 세우고 시멘트로 ‘공구리’나 쳐봤지, 한옥은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일 년여 동안 한옥 짓는 목수들을 만나 묻고 배우면서 함께 재실을 지었다. 나무 하나 깎고 기둥 하나 올리는 데서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온 힘을 쏟았다. “그때 정성을 다한 것이 오늘까지 왔어요. 지금껏 단 1mm도 주저앉은 주춧돌이 없으니, 내가 허투루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정씨의 자랑스러운 후손들.  
왼쪽부터 정구성(86), 정구익(76),  
정선택(85), 정태송(69) 어르신.

영일 정씨가 인천에 터를 잡은 것은, 조선 중기인 1607년 정여온(鄭汝溫)이 아버지 정제(鄭濟)의 묘를 쓰면서부터다. 묘역에는 ‘금시발복(今時發福: 어떤 일을 할 때에 복이 곧 돌아와 부귀를 누리)’할 명당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효심이 깊었던 선비 정여온은 부친을 모실 명당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인천 청량산 남쪽 구릉에서 이 명당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가까이에 초가집이 있어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가려 했다.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온 늙은 부부가 그를 보고는 크게 반기었다. 알고 보니 10년 전 관아에 진 빚을 갚지 못해 마포 나루에서 목숨을 버리려 했던 이들로, 정여온이 그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다. 부부는 여생 동안 그 은혜를 갚기로 하고, 좋은 밋자리를 찾아내 땅을 사둔 채 은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인천에 자리 잡은 영일 정씨 가문을 승지공파라고 하는데, 이는 그들의 중시조인 정여온의 벼슬이 승지였기 때문이다. 은혜에서 비롯된 좋은 기운 덕인지 이 땅에 뿌리내린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창했다. 정구성(86) 어르신이 가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읊어 주었다. “영일 정씨가 대대로 뿌리박고 살아온 본고장이 바로 동춘동이야. 우리 가문은 1640년부터 줄곧 당당히 벼슬을 누리고 대성을 이뤘어. 그 훌륭한 집안의 조상을 기리고 이 땅을 지키는 게 우리이고.” 정여온의 손자인 정시성은 강원도의 관찰사가 됐고, 증손자인 정석빈은 제주목사를 지냈다. 가문은 판돈령부사를 지낸 정수기, 학남대감으로 잘 알려진 우의정 정우량, 좌의정 정휘량 등도 배출했다. 정치달은 영조의 사위가 됐다. 가문의 영광이 계속됐다.

그러나 400년 깊게 뿌리내린 영일 정씨 가문도 개발 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땅을 파고 도시를 세우면서 가문은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결국 뿌리를 찾아 돌아온다. “옛말에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향한다’고 했어요. 동물도 그러한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품고 살 겁니다.” 종친회의 정태송(69) 사무국장은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보내고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태어났으니 그냥 산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곳에 터를 내리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게 또 집성촌 사람들이다. 오늘도 그들만의 도타운 정으로 서로를 감싸며 살아간다. “지금은 도로가 나고 바다가 메워지면서 맥이 끊어져, 가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허허. 그래도 조상님 언덕으로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지요.” 영일 정씨 사람들은 현재 가문의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정구성 어르신은 “오늘을 있게 한 선인들의 자취가 훼손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해야 해. 우리 집안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라며 가문을 대표해 바람을 전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있게 한, 민족의 근원과 뿌리다.



청량산 능우리 일대에 있는 영일 정씨 묘역.  
조상이 잠들어 있는 묘소가 27기나 된다.  
인천에 있는 묘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있게 한, 민족의 근원과 뿌리다.







## 인천 주제로 문화적 ‘딴짓’ 예술적 ‘별짓’

장한섬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화도진도서관에서 서너 번 그와 마주친 적이 있다.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 웬일이예요.” 그도 늘 같은 답변을 한 것 같다. “공부하러요.” 일 년에 한두 번 가는 그곳에서 우연히 서너 차례 만났다면 그는 향토사 전문 화도진도서관의 ‘죽돌이’라는 애기다.

‘플레이캠퍼스’ 장한섬(43) 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중구 향동 한중문화관 무대에 ‘김정호, 굴뚝 위의 하얀나비’를 올렸다. 산업화의 상징인 인천 굴뚝 위에 김정호를 세운 기발한 작명(作名)에 끌렸다. 무엇보다 한 번은 티켓을 ‘사줘야겠다’는 의무감이 발동해 현장을 찾았다. ‘새벽길’ ‘작은 새’ ‘이름 모를 소녀’ ‘달맞이꽃’ 등 김정호의 노래 10곡을 소프라노 이소연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불렀다. 담백했다. 그가 많이 궁금해졌다.

그는 1975년 부평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골목에서 서영춘, 구봉서를 싱크로율 100%로 흉내 내 친구들을 자주 넘어가게 했다. 옛장수 장단을 즉석에서 복기해 옛장수 아저씨에게 아예 가위를 넘겨받을 정도였다. 학교에서는 서로 조합되지 않을 듯한 오락부장, 도서부장, 응원부장을 동시에 도맡았다. 그만큼 문화적 ‘씩스’가 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풍물패가 되어 문화관을 살짝 맛보는 계기가 되었다. 6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접은 후 틀어박혀 2001년 장편소설 ‘우리 그늘’을 쓴 데 이어 ‘구름, 닳을 내리다’를 출간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쓰레기’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름이 되었고 후에 ‘희곡’ 창작으로 이어졌다.

그는 인터뷰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했다. 북성포구 살리기 시민모임 운동에 참여하고 온 길이었다. 요즘 그를 무대나 공연장 밖에서 보는 게 어렵지 않다. 그의 이름 앞에는 시민운동가, 희곡 작가, 연극 연출자, 공연 기획자, 풍물패 단원, 소설가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인천’이란 무대에서 종횡무진 혹은 좌충우돌이다. 2009년 그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경동 씨리재 옛 돌체극장의 조명을 다시 켰다. 원래 얼음 창고였기에 사시사철 한기 도는 그곳을 ‘플레이캠퍼스’ 사무실이자 공연 무대로 ‘핫’하게 만들었다. 책을 탐독하고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훑으며 ‘인천’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시점이었다.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주(變奏)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해 공간이 필요했다. ‘플레이캠퍼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곳에서 놀고, 만들고, 올리고 그리고 계속 공부했다.

늘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뭘 한 거지. 이참에 그의 ‘행적’을 훑어 봤다. 인천지역의 문화 역사 공부 모임 ‘배꼽주인’을 운영하면서 ‘인천은 항구다’를 외치며 함께 발품 팔 기행단을 이끌었다. ‘이미자&패티김의 도시미학’ 시민 강좌를 열었고 인현동 화재 학생 희생자 추모제를 매년 주관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자전거’를 창작 공연했고 주부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극단의 국악 연극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배호 스물아홉 청춘’ 시민음악회를 자유공원 야외에서 공연했고 지역 도서관에서 클래식 인문학 ‘거슈인, 재즈의 셰익스피어’ 강의도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물었다. “어디 갈 거예요?” 그가 짧게 대답하고 긴담모퉁이길로 향했다 “울목 도서관요.” 그는 오늘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문화적 ‘딴짓’과 예술적 ‘별짓’을 다 한다.



CULTURECALENDAR

02

01

어린이 체험전 ‘헬로 브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오전 10시~오후 6시  
아동 2만2천원, 성인 1만7천원  
☎ 1644-1048

~2월 24일까지 공연/ 매주 일요일  
및 2월 15일~2월 17일 휴관

가족 뮤지컬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롯데마트 부평점 2층 어린이극장  
평일 오후 4시,  
주말 및 공휴일 낮 12시, 오후 2시, 4시  
정상가 1만2천원,  
예매가 1만1천원,  
평일 성인 할인 8천원  
☎ 507-5961

~2월 4일까지 공연

02

가족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인천 스퀘어원 4층 문화홀  
수.목.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낮 12시, 오후 2시, 4시  
일요일, 공휴일 오후 2시, 4시  
매주 월, 화 공연 없음  
2월 16일 설 당일 휴관  
전석 1만원  
☎ 010-6667-4677

~3월 1일까지 공연

03

2018 남진 신년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 1566-6551



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 1670-7343

가족 뮤지컬 ‘기분을 말해봐’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 070-8844-7179

04

제18회 연수문화원 알핀로제  
어린이 요들단 정기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초대  
☎ 821-6229

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3만원  
☎ 1670-7343



04

선데이 콘서트  
‘김희진 바이올린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가족 뮤지컬 ‘기분을 말해봐’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 070-8844-7179



09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 연주회 ‘시벨리우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가족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289-4275

10

인음주니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클래식 신년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초대  
☎ 888-0808

가족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289-4275

11

이소라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 1688-6675

선데이 콘서트 ‘트리오 파로스’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8

선데이 콘서트 김효영  
생황 독주회 ‘생황 이야기’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23

뮤지컬 ‘광화문연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 1566-6551

24

봄의 시작을 여는 무용 축제 -  
세 번째 이야기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7시  
전석 1천원  
☎ 423-8119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  
‘Run Again’

인천학생교육회관 2층 짜리재홀  
오후 4시  
초등학생 무료, 일반인 6천원  
☎ 760-3532



KCO 스트링 콰르텟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289-4275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 6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 1599-0746

뮤지컬 ‘광화문연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 1566-6551

25

제2회 인천대건OB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30분  
전석 초대  
☎ 010-2254-6874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 1599-0746



뮤지컬 ‘광화문연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 1566-6551

선데이 콘서트  
‘양상블 칸타빌레’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28

마티네 콘서트 ‘마실’  
크로스오버양상블  
‘라 클라쎄’의  
판타스틱 싱어즈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3천원  
☎ 460-0560



이달의 展

백범 김구 드로잉 프로젝트  
~ 2월 21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부평작가열전 다섯 번째 이야기 ‘흐르는 도시’  
2월 22일 ~ 3월 25일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제5회 박서연 개인전  
~ 2월 28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2층 갤러리 다슬

소설에 울고 웃다 - 근현대 베스트셀러 특별전  
~ 3월 31일  
한국근대문학관

인상주의 작가전  
~ 3월 17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윤영수 - Hybrid Icon  
~ 2월 19일  
신세계갤러리 인천점

‘근대가 찍어 낸 인천 풍경’ 展  
~ 2월 18일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생활 속의 우리 꽃’ 기획특별전  
~ 2월 25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엽서로 보는 인천의 근대 문물’ 展  
~ 2월 9일  
인천개항박물관



윤영수 작가 - Homo Sapiens Sapiens



## 시간의 속도를 늦추다 명품 공연의 향연

결심과 다짐의 1월이 지나 조금은 느슨해지는 2월,  
하지만 민족의 명절 설과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뒀어일까요?  
2월의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의 속도를 잠시 늦춰줄 명품 공연을 소개합니다.

### 어느새 10주년! 전설이 될 연극

친정 엄마와 2박 3일

10년간 60만 관객을 올린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이 인천을 찾아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배우 강부자와, 섬세한 감성이 빛나는 배우 전미선이 얼어  
붙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 1599-0746  
일시 2월 24일 오후 2시, 6시, 2월 25일 오후 2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 언제나 변함없는 클래식 감동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 연주회 ‘시벨리우스’

인천의 자랑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준비한 이번 정기 연주회는  
‘시벨리우스’입니다. 핀란드의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는  
깊이 있고 낭만적이면서도 웅장한 교향곡으로 세계인에게  
감동을 줍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린 이해정의 협  
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으로 클래식의 감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2월 9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 낮고 깊게 울리는 감성의 메아리

이소라 콘서트

독특한 음색과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픈 가사로 늘 관객을 감동시  
키는 가수 이소라 콘서트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  
집니다. ‘100가지 공연에 늘 다른 100가지 감동이 있다’는 이소라의  
공연. 몇 번을 감상해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688-6675  
일시 2월 11일 오후 6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티켓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2018 남진 신년 콘서트

‘동지’ ‘빈 잔’ ‘님과 함께’ 등을 부른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정상급  
가수 남진이 인천을 찾아옵니다. 20대 못지않은 체력과 열정으로  
더욱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남진 신년 콘서트에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의 및 예매 ☎ 1566-6551  
일시 2월 3일 오후 2시, 6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 영원히 기억될 명곡들의 향연

뮤지컬 ‘광화문 연가’

최고의 작곡사, 고(故) 이영훈의 명곡들이 감성적인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붉은 노을’ ‘옛사랑’ 등 명곡  
들로 엮어낸 ‘광화문 연가’는 추억의 그 시절로 관객들을 데려갑니다.  
호화로운 출연진과 뛰어난 제작진이 선물하는 감동적인 뮤지컬  
한 편, 2월의 진한 감동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66-6551  
일시 2월 23일 오후 8시, 2월 24일 오후 3시, 7시 30분, 2월 25일 오후 2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 NEWS BRIEF

## 인천시홍보자문단, ‘서인부대’ 알린다



인천시 홍보자문단이 우리시의 재정건전화와 ‘서인부대’를 적극 알린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용식 홍보자문단 고문 등 10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홍보자문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는 애인(愛人)·우리는 인천, 2018년 희망 인천시대를 열어갑니다!’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슬로건인 ‘서인

부대’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다. ‘서인부대’는 서울-인천-부산-대구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우리 시가 부산을 앞질러 서울 다음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80조9천억 원으로 부산의 81조2천억 원과 불과 3천억 원 차이다. 1인 당 ‘지역내총생산’으로 보면 인천이 2천782만 원으로 부산 2천356만 원보다 높다. 2016년 경제성장

률도 인천이 3.8%로 1.7%인 부산을 큰 차이로 따돌려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또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척도인 지방세는 인천이 2018년 기준(예상) 3조8천321억 원으로 3조9천249억 원인 부산과 비슷한 규모다. 올해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5천34억 원은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부산의 증감율은 4.4%, 대구는 12.3%에 불과하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3052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시내버스 세 노선 투입

인천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시내버스 세 노선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투입한다. T2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203번, 307번, 6100번이다. 또 T2 개장에 따른 인구 증가 수요에 대비해 영종도 순환 시내버스 598번 10대를 신설해 2월 10일부터 운행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내에서

제1여객터미널(T1)까지 운행하고 있는 일부 노선을 T2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2층 버스는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2층 버스는 시범으로 6대를 도입한 후, 사업성에 따라 내년 중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53

노선번호	주요경유지	운행예정일
202번	석남동~청라~하늘도시~T1~T2	2018. 1. 27
203번	영종신학당~하늘도시~공항신도시~T2	2018. 2. 3
303-1번	십정동~논현동·송도~T1~T2	2018. 2. 3
307번	십정동~청라~하늘도시~공항신도시~T2	2018. 2. 3
308번	북면환승센터~원정역~갈말역~청라역~T2	2018. 2. 10
6100번 (e버스)	구월동~송도~T1~T2	2018. 2. 10

## 문화재 안내판, 새롭게 변신한다

인천시는 시민에게 정확한 문화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문화재 안내판 종합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문화재 안내판 맞춤법 오류를 비롯해 잘못된 역사적 사실 표기,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낡은 안내판이 정비 대상이다. 시는 역사, 국문,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 안내판 자문단’을 구성해 문안을 작성하고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안내판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과 협력해 안내판 제작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문화재과 ☎440-4476



## 어린이 하갯길 길동무 사업 추진



우리 시는 초등학교 어린이 하갯길 안전 확보와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린이 하갯길 길동무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근무는 어린이 하갯길 시간에 맞춰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로 시간당 최저 임금 7천530원을 적용, 4주 만근 기준 월 56만4천750원을 지급한다. 길동무 신청은 여성 일자리 분야는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노인 일자리 분야는 만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올해는 길동무를 총 525명 선발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일자리정책과 ☎440-4233

## 정보 공개 수수료 무료화 추진

우리 시가 전자파일의 정보 공개 수수료 무료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전자파일 정보 공개 수수료로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땀 1MB마다 100원씩 받았지만, 앞으로는 용량과 상관없이 문서·도면·사진 등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한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1건당 800원 수수

료를 받던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도 무료화했다. 시는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후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수수료 무료화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세정담당관실 ☎440-2572

## 재난배상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8월까지 유예

우리 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오는 8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인천 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1월 기준 총 6천618곳으로, 이 중 93%(6천156곳)가 보험에 가입됐다.

원래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과태료 유예 기간을 올해 8월 31일까지 연장한 시는 앞으로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8월까지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 지도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시 재난대응과 ☎440-1858

## 강화군, 무료 예방접종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 강화

강화군은 올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예산 1억5천만원을 들여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또 강화도 내 지역 아동센터와 초등 돌봄교실 아동 1천10명에게 1주일에 한 차례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과일

이랑 채소랑 영양 나눔 사업’도 추진한다. 의치·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도 종전 만 45세 이상에서 만4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예산 1억7천만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문의 : 강화군청 ☎930-3346





인천화장품 브랜드 ‘어울’ 태국 론칭



인천 지역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공동 상표인 ‘어울(Oul)’이 태국에 진출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8일 태국 방콕 센트럴플라자에서 어울 화장품 출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출시 행사에서 어울 브랜드 운영사인 (주)진흥통상비엔에이치는 현지 업체와 9억6천만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어울의 태국 수출 목표액은 40억원 수준이다. 시는 동남아시아 최대 화장품 시장인 태국 진출을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시장의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멕시코 화장품 유통업체와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신성장산업과 ☎440-3273

공무원 ‘출장은 택시로’... 업무용 택시제 시행

우리 시가 소속 공무원의 출장 때 관용 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토록 하는 ‘업무용 택시제’를 시행했다. ‘업무용 택시제’는 직원 출장 시 부족한 관용 차량 대신 지역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 직원이 이용한 택시 요금은 업무용 택시 전용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시는 업무용 택시를 확대 활용하고 관용차를 점차 줄이면 관용차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 택시업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시 택시화물과 ☎440-3804



인천시 공공시설물 114곳 내진 보강

우리 시는 올해 248억 원을 들여 공공 시설물 114곳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할 예정이다. 대상 시설은 공공 건축물 26건, 도로 시설 20건, 수도 시설 20건, 하수처리시설 48건이다. 시는 2030년까지 전체 공공 시설물 970건의 내진 공사를 완료해 내진율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2017년 말 기준 인천시 공공 시설물 내진율은 58%다. 내진 보강 공사는 주로 2005년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완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규모 6.0~6.5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을 보강한다. 문의 : 시 재난예방과 ☎440-3369

인천음악플랫폼 개관

인천의 음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음악플랫폼이 지난 1월 23일 중구 향동 5가 13 옛 동인천등기소 건물에서 개관했다. 147m<sup>2</sup> 면적의 인천음악플랫폼은 개항기 선교사들이 전파한 서양 음악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음악 역사와 인천 연고 음악가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또 뮤지컬·음악자료실 등을 갖춰 주 중에는 일반인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440-4012



노후 경유차 1만5천 대 조기폐차 지원

우리 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1만5천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로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240억원 예산 범위 안에서 2000년식 이전 차량은 차량 가격 전액을 보상해주고,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자

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대기보전과 ☎440-3554



소득 ‘13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원

우리 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초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017년 447만원에서 2018년 452만원으로 1.1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약 136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 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함께 올해부터는 13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 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1만6천원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문의 : 시 공감복지과 ☎440-292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추진

우리 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버스의 신고 및 유상 운송 허가를 얻은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신청자 중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의무 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문의 : 대기보전과 ☎440-3553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 협력 강화

우리 시가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 실무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는 ‘인천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 협력 실무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23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민·관 협력 실무단은 시와 군·구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공무원과 각 지역의 민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진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협력 실무단은 앞으로 매달 정기 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보훈다문화과 ☎440-2904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우리 시는 올해부터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급식카드와 도시락 배달은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단체급식소는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단가 인상은 7년 만에 이뤄졌으며, 급식카드 가맹점이 늘고 아동의 식품 선택 폭이 넓어져 영양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는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 116억을 편성해 급식카드와 도시락, 단체급식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440-2857

관내 병원 461곳 긴급 안전점검

우리 시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병원 461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내용은 의료시설 피난계획수립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주·야간 상주 인원 근무 실태, 화재 사고 초기 대응능력,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소규모 숙박시설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인력을 동원해 1일 3차례 순찰한다. 관내 요양원 358곳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 근무자 등을 상대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을 시행한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 119 전문구급차 10대와 전문의료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구급훈련도 병행한다. 한편 소방본부 및 재난안전본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숙박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연휴기간 재해 약자시설을 1일 3회씩 기동순찰하는 등 소방력을 총동원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문의 : 인천소방본부 ☎870-5180





IFEZ NEWS



송도국제도시 경관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경관이 확 바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 경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0일 ‘도시 경관 향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송도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투자유치·용지분양 등 5개 분야 담당 부서장이 참여한다. 경제청은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업성 위주 개발이 이뤄져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건축물로 인한 경관 저해 사

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별 특성과 경관을 고려한 경관 상세 계획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송도 6·8공구에서 건축 중인 필지를 제외한 부지에 경관 상세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송도국제업무단지, 국제화 복합단지, 11공구 등 경관 상세 계획이 없는 다른 지역에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도시경관 향상 TF 활동을 통해 특화 경관 계획이 마련되면 창의적 개발과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로 송도에 고품격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독일계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독일계 기업대상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다.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인 김종갑 지멘스 회장, 슈테판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과 각종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현재 쉐커킨,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만도브로제, 리탈, 세미크론, BMW Korea, 머크 등 독일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유치의 65.5%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국 경제의 성장 중심축이 되도록 독일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트럴파크 수로 환경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2월 말까지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의 수로 환경을 개선한다. 경제청은 센트럴파크 수로의 바닷물을 빼고 부직포, 해초류 등을 제거해 악취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센트럴파크 수로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송도국제도시의 명소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시행사인 NSIC가 총사업비 2천억원을 들여 2009년 준공했으며, 전체 면적이 40만㎡에 이른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특허 등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가운데 ‘중앙집중 의사결정 방식의 지능형 통합 관제 플랫폼 시스템’ 기술에 대해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 기술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장비와 센서를 연계하고 데이터를 통합 수집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수출을 추진 중인 경제청은 지난해에도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2건을 특허 등록했다.

바이오메카 IFEZ, 독일 머크사도 잡았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과학기술 전문 기업 머크(Merck)가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에 둥지를 튼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22일 경제청사에서 한국 머크(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머크는 협약에 따라 2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머크 한국 생명과학 운영본부’를 송도에 건립할 예정이다. 머크는 2016년 10월 머크 M.랩 협업센터를 송도에 설립했고 지난 연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올 상반기에 운영본부를 착공, 내년 준공할 예정이다. 머크는 3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最古) 과학기술 전문 기업으로, 다수의 국내 바이오 기업에 생명과학 분야 바이오 공정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각지에 분산된 생명과학 업무를 송도로 통합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사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IMAGE NEWS

백령도에 살며 서해를 누비는  
점박이물범 친구들



“천연기념물인 우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이기도 했죠!”

01

그들을 지켜보는 바닷가 오랜 친구,  
팔미도 등대

1903년에 점등돼 100여 년 동안  
서해의 등불이 되어 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인천을 둘러싼  
격동의 근현대사도 목격했지요.”

02

날이 갠다면 물범 친구가 깜빡 길을 잃을까,  
팔미도 등대는 쉼 없이  
불을 밝히고 바른 물길로  
인도하려 했죠.



“내 불빛을 따라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하니까.”

03

환상의 짝꿍,  
물범과 등대가  
인천시의 새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니 #꼬미 #등대리 #버미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04



# COUNCIL NEWS

## 소외 이웃 보듬는 ‘사랑나눔’ 실천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1월 24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이경호 인천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이재민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이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의회도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인천지사 회장은 “300만 인천 시민이 소중히 납부해준 알토란 같은 적십자회비로 아프고 힘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긴급 지원,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달하는 적십자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방문



인천시의회회가 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시의회를 방문했다.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총 8명의 대표단이 방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의회의 상호 친선 국제 교류와 우호를 다지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호놀룰루시 방문은 미국의 선진 의정을 벤치마킹하고 양 도시의 문화·산업·관광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호놀룰루시의회는 지난 2012년 ‘상호 우호 교류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 도시 의회 대표단이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2018년 신년 인사회 개최



인천시의회의는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3일 2018년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의회 의정에 관계된 주요 인사들이 시의회 중앙홀에 모였으며, 제갈원영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생의 협력자로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를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던 부채를 3년 6개월간 3조7천억원 이상 상환해 재정 위기 주의 단체에서 재정 정상 단체로 돌아선 경이로운 한 해”로 평가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도 300만 인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책적인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상생의 협력자로서 제 역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의원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특히 금년은 제7회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로서, 인천시의회 제7대 의원 모두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회기운영은 총 6회 125일(정례회 2회 66일, 임시회 4회 59일)

구분	회기	회의일수	주요처리안건
제246회 (임시회)	1월24일~2월6일	14일	시정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포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47회 (임시회)	3월15일~4월3일	20일	시정질문(3월16일, 19일, 20일/3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18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상임위원회)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4월3일)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청/예정)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48회 (임시회)	7월2일~7월17일	16일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개원식 시정보고 2018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상임위원회) 기타 긴급 안건 처리
제249회 (제1차 정례회)	8월29일~9월18일	21일	시정질문(8월30일, 31일, 9월3일/3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예정)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50회 (임시회)	10월11일~10월19일	9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1월5일~12월19일	45일	시정연설, 추경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주요업무(실적)보고 (2017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 사업실적 및 2019 계획 포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6일~19일/14일간) 시정질문(11월21일~23일/3일간) 및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2018년도 주요행사 및 일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 2월9일~25일(17일간)  
설 연휴 : 2월15일~18일(4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 4~5월 중(20일간)  
제47회 전국소년체전(충북 충주) : 5월26일~29일  
2017회계연도 결산서 제출시한 : 5월31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6월13일  
제8대 의회 의원 임기개시일 : 7월2일  
을지연습(예정) : 8월20일~23일(4일간)  
추석 연휴 : 9월22일~26일(5일간)  
제99회 전국체전(전북 익산) : 10월12일~18일

제54회 인천시민의 날 : 10월15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전북 익산) : 10월25일~29일  
2019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시한 : 11월11일까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1월15일  
2019년도 예산안 의회 의결시한 : 12월16일까지

※ 매 회기마다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므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의회사무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 안내

주택연금이 행복한 노후를 책임집니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 :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

**대상 주택** :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420-2139, 2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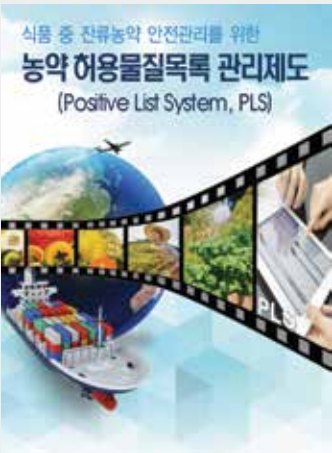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시행

우리 시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대상** :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문의** : 시 농축산유통과 ㉠440-4362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PLS) 시행 안내



최근 기후변화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해외 농산물 수입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과 수입을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를 도입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 기준(0.01mg/kg·ppm)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우리 시 생산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440-8515~7 /

식품 의약품 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67

## 희망 일자리 나침반! 잡스(Job's) 인천 이용 안내

일자리와 시민의 소통 공간인 잡스 인천이 시민에게 다가갑니다.  
잡스 인천에서는 정부와 시, 민간 기관의 일자리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일자리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룸과 휴게 공간도 갖춰져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장소** : 남동구 예술로 126 205호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홈페이지** : 일자리센터 ㉡incheon.work.go.kr

**문의** : 잡스 인천 ㉠438-3007~9 시 일자리정책과 ㉠440-4244



## 2018년 환경 아카데미 운영 안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지식을 전달하는 ‘2018년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연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미세 먼지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 요령 및 개인위생 수칙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과 선생님

**인원** : 약 20명

**문의**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440-5549

## 문화 특강 클래식 인문학 ‘거슈인, 재즈의 셰익스피어’ 안내

화도진도서관에서 문화 특강 ‘거슈인, 재즈의 셰익스피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 기획자 장한섬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인문학 특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월 1일~2월 8일

**장소** : 화도진도서관 평생학습 1실

**대상** : 인천시민 40명 선착순 무료

**모집** : 1월 15일~마감 시 까지

**문의** : 화도진도서관 ㉠760-4121~3

## 문화누리카드, 올해 7만원 지원

우리 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지난해까지 개인당 연 6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만원을 올려 7만원씩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자들도 문화누리카드 중복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천시 문화예술과 ㉠440-4023,  
(재)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760-1035,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인향야간학교 초·중·고등학생 모집

인천 최초의 야학으로 불을 밝힌 인향야간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업에 관심 있는 인천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정** : 초등, 중등, 고등 과정(초등 과정은 한글반과 병행 지도)

**대상**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9시

**기간** : 연중 수시 모집

**장소** : 중구 자유공원로 123-19

**문의** :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772-4061



해든뮤지움 청소년을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안내

해든뮤지움에서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술관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미술관의 다양한 역할을 체험해볼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사전 예약  
장소 : 세미나실 및 전시실  
대상 : 초·중·고등 청소년 단체  
수강료 : 5천원, 진행료 별도  
문의 : 해든뮤지엄 ☎937-6911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느티나무공방 안내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에 있는 느티나무공방은 4세 부터 7세 아동들이 나무를 활용한 간단한 소품을 직접 만 들면서 나무의 질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 :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2층 느티나무공방  
기간 : 2월 1일~2월 28일  
대상 : 4세~7세 보호자 동반 필수  
문의 : 인천대공원 사업소 ☎440-5822

청라호수도서관, 2월 방학 특강 운영

청라호수도서관에서는 2월 방학을 맞아해 올림픽 체험 행사, 음악회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2월 10일에는 1층 세미나실에서 초등학교 2·3학년을 대 상으로 ‘도서관이랑 올림픽이랑’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2월 24일에는 2층 다목적 강당에서 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벤킴의 해설이 있는 초록 음악회’를, 2월 1일 ~28일 사이에는 도서관 1층에서 도서관 이용객을 대상으 로 ‘<거짓말> 고대영 작가 원화전’을 진행하오니 시민 여 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도서관이랑 올림픽이랑(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벤킴의 해설이 있는 초록 음악회(2월 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신청 : 인터넷 및 방문 접수  
문의 및 안내 : 청라호수도서관 ☎563-8125 /  
Hwww.michuhollib.go.kr/hosu

부평아트센터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수강생 모집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의 봄방학 기간을 활용해 놀이와 연극적 활동으로 구성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월 19일~2월 23일  
3·4학년 오전 10시 30분~낮 12시, 1·2학년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각 반 13명  
참가비 : 5만원 (5회)  
신청 :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  
문의 : 부평문화사랑방 ☎505-5950, 5995



파이팅!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인천 시민 애인(愛仁) 패럴림픽 응원단 모집 안내

우리 시에서는 인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인천 시민 애인 응원단’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어 진행될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인천 시민 애인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기간인 3월 10일에는 휠체어 컬링(강릉)과 아이스하키(강릉), 3월 17일에는 장애인 아이스하키(강릉) 경기를 관람하며 해당국 선수를 응원하고 시 홍보 활동을 펼칠 ‘인천 시민 애인 응원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2천명  
자격 : 초·중·고등학생 이상, 응원 활동 및 장시간 버스 탑승이 가능한 시민  
기간 : 1월 24일~3월 5일  
지원 : 입장권, 수송(단체 버스), 식사 1식, 보험  
신청 : 애인 응원단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kong3748@korea.kr)  
문의 : 체육진흥과 ☎440-4953~6 / ☎440-8766 / Hwww.incheon.go.kr



그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브랜드북 ‘그길, 인천’, 컬러링북 ‘인천을 그리다’ 출간

시 브랜드담당관실 홍보콘텐츠팀에서 인천의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의 정신과 가치가 투영된 단행본 ‘인천, 그 길’과 컬러링북 ‘인천을 그리다’를 출간했습니다.



그길, 인천 (브랜드북)

‘인천, 그길’은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와 동고동락하며 눈부시게 성장한 도시 인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를 담아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가 만나 빛어낸 인천의 길… 인천이 개척해온 여러 갈래 길을 따라 걸으며, 그 길에서 만난 인천의 삶과 사람들, 그 감동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보 폭을 맞추며 걷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종이에 한자 한자 기록했습니다.



인천을 그리다 (컬러링북)

‘인천을 그리다’에서는 인천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인천이 고향인 3대를 주인공으로 한국 철도역의 원조인 인천역에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까지 스케치 여행을 떠났습 니다. 각각의 장소에는 인천에서 뿌리내린 이들 가족의 회로애락이 커켜이 쌓여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소 녀의 가족을 따라 무지갯빛 추억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의 인천을, 여러분만의 색깔 로 칠해보세요.

※ 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시 브랜드담당관실 홍보콘텐츠팀(☎440-8305)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아이는 행복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나눕니다.  
300만 인천시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안윤수(여아)**  
2016년 1월10일 생·연수구  
부모의 바람  
윤수의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윤수가 건강하고 큰 꿈을 펼쳐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걱정 없도록 실질적인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정하준(남아)**  
2016년 1월 26일 생·남동구  
부모의 바람  
‘우리 하준이! 앞으로 인천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아빠가 기원할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도록 육아정책이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가 제일 절실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규제도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마음 놓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박시후(남아)**  
2016년 8월 20일 생·남동구  
부모의 바람  
순둥이 우리 시후야,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인천시도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다둥이카드를 둘째 아이부터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저출산시대, 둘째부터 다둥이 아닌가요?

### 잠깐!!

우리 시는 어린이집 자원 아동들에게 보다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건강하고 튼튼한 아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청정무상급식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지원내용**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급간식비 38,000원(1인/월)과 급·간식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0~2세-10,000원/1인/월, 3~5세-14,400/1인/월) 지원

**문의** : 시 출산보육과 ①440-2892 또는 군·구 보육업무 담당부서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 및 인천시에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 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①440-8304

## 브랜드, 문화가 되다

### ② 스타벅스

글 박혜란 시 브랜드담당관

#1. 대학생 연구 씨는 이날도 오후 내내 햇살 가득한 별다방 창가를 전세 내고 앉아 밀린 과제를 마친 후 하루키의 소설 마지막 장을 끝냈다. 저녁 약속에 맞춰 일어나기 전까지 네 시간 동안 그가 마신 건 샷 추가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었다.

#2. 직장인 혜진 씨는 드디어 갖고 싶었던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손에 넣었다. 골드레벨 충성고 객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다이어리 득템에 실패하여 중고 사이트를 통해 겨우 구했던 터라 그 기쁨은 더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걸고 바로 다이어리를 찍어 올렸다.

#3.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스타벅스가 없으면 불호령을 내리는 악마 편집장, 미란다. 그녀의 비서 앤드리아는 보스를 위해 바쁜 출근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쉽지 않은 직장생활이지만 그녀는 그렇게 뉴요커가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STARBUCKS

혜진 씨와 연구 씨, 앤드리아에게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다. 또 다른 집이며 자부심이며 스타일이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문화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하워드 슐츠 회장의 확고한 브랜드철학 때문이다.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집과는 다른 특유의 분위기, 친절함 서비스, 커피에 어울리는 음악 등 감성적 체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철학이 그동안 집에서 원두커피를 마시며 빠르고 편한 것만 추구해온 미국인들을 집 아닌 곳에서 커피를 마시게 하고 여유를 즐기게 만들었다. 부드럽고 진한 에스프레소 향기에 끌려 매장 안으로 들어와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대화를 나누게 만들었다. 스타벅스에서는 온 종일 단 한 잔의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어도 눈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10배나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클래식, 뉴에이지, 팝, 재즈 등 엄격하게 선곡한 음반을 매일 1장씩 모든 나라에 발송한다.

스타벅스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고 머무는 공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다. 그 브랜드를 경험하러 일어나야겠다. 길 건너 카페를 지나 사거리 스타벅스에 가야겠다. 그리고 주문해야겠다. “돌체 라테 그란데 하나요.”



# ‘인천우유’를 아시나요



글 배성수(인천도시역사관장)

대학 시절 학교에 가려면 주안역에서 전철을 내려 41번 버스를 타야만 했다. 버스가 신기시장 지나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 설 때면 왼편 차창 밖으로 ‘인천우유’라 적힌 높다란 굴뚝이 서 있었다. 주위의 집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않던 풍경이었어일까? 기억 속의 인천우유는 맛이나 병 생김새보다는 공장 굴뚝으로 남아있다.

인천우유는 인천 소재 낙농업자들이 결성한 인천축산협동조합에서 생산했던 우유다. 1963년 정부가 건설한 우유 살균처리장을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우유 생산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공 처리 과정을 거쳐 장기간 보관과 유통이 가능한 분유, 연유와 달리 우유는 유통기간이 짧아 냉장보관과 살균처리 시설이 필요했다. 1960년대 들어 정부는 국민 식생활 개선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도마다 1~2개의 우유 살균처리장을 두고, 이 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축협에서 맡아 보도록 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부산우유와 제주우유는 인천과 마찬가지로 당시 살균처리장을 위탁받았던 지역 축협에서 생산했던 우유 브랜드다.

초창기 인천축협은 살균 처리된 우유를 간단한 포장 과정만 거쳐 다방이나 제과점 등으로 유통시켰으나, 1960년대 말 신기촌 언덕배기에 공장을 마련한 뒤 병과 비닐 등으로 개별 포장한 우유에 ‘인천우유’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개별 포장에 가능해지면서 유통 시장도 다변화되어 인천우유는 상점과 다방은 물론 인천 시내 각 가정으로 배달되었고, 학교 급식에도 포함되었다. 전국적으로 우유 소비가 급증하자 각 지역의 축협과 축산학파가 있는 대학을 위주로 형성되었던 우유시장에 기업이 뛰어들었고, 소자본의 지역 축협에서 생산

하던 우유는 최신 시설과 전국 유통망을 갖춘 기업 제품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인천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어 그간 인천우유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우유 시장은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 제품에 잠식당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우유는 신상품 개발과 유통망 확대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말 유산균 음료가 유행을 타자 ‘요굴사와’라는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자연우유’로 이름을 바꿔 인천에 한정되어 있던 시장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브랜드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것이 독이 되었던 것일까. 결국 실적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고 1987년 커피 가공업체인 동서식품에 합병되어 ‘동서우유’라는 새로운 상표를 달게 되었다. 그마저도 오래 버티지 못해 1996년 동서식품이 우유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면서 30년 넘게 이어온 인천우유의 맥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지나친 상상이겠지만, 당시 인천우유가 유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 대신 인천의 소비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인천’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지켜냈더라면, 지금 우리는 마트 진열대나 집 냉장고의 우유팩에서도 인천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인천 시민의 출근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던 인천교통방송의 이름이 올해 들어 경인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인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방송권역을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란다. 방송에 제 지역 이름을 달고 있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의 도시에 비해 차량 대수나 교통량이 적지는 않을 터인데, 어쨌든 또 하나의 인천 브랜드가 사라지게 되었다. 인구를 비롯해서 도시의 각종 지표는 높아져만 가는데 인천이라는 이름이 갖는 가치는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인천박물관의 근본 사명의 하나인 인천향토사의 완성은 인천 부근에 산재하고 있는 고적 조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다” - 석남 이경성

철부지 학예사 시절, 박물관 서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인천고적조사보고’에 적혀있던 초대 관장 이경성 선생의 글이다. 선생이 직접 펜으로 휘갈겨 쓴 이 구절을 보면서 무언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사보고의 한 구절이 아니라 늘 말로만 읊조려 왔던 인천시립박물관의 살아있는 전통이었다. 20년 넘게 박물관 학예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반사경이자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할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다.

## 석모도 보문사 향나무



사진 오인영 남구시전인엽합 화점

6·25 전쟁이 강산을 휩쓸었을 때,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3년이 흐른 뒤 섬 나무뿌리에선 다시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

나무는 죽음이 덮쳤던 그 자리에서 그 몸 그대로 소생했다.

고통으로 뒤틀린 몸통을 재차 일으켜  
사방으로 생명의 가지를 뻗었다.

그리고 성지(聖地)를 보호하듯  
보문사 석실 앞을 한 아름 감싸 안으며 엮드렸다.

이름난 도량의 터, 보문사 돌 법당처럼  
반만년 시들지 않은 단단한 나무이기에  
노목의 침엽(針葉) 하나하나  
관음보살의 광대무변한 세상 이치를 이해하는 듯  
지금도 끝없는 상록(常綠)으로 살고 있다.

나이 : 600년 이상 / 나무 높이 : 약 20m  
특징 : 원줄기는 웅트림을 하는 듯 구불구불한 형태이고, 줄리진 큰 가지는 동서로 넓게 펼쳐져있다.  
석모도 보문사 석실과 범종각 사이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7호로 보호 중이다.